東大新聞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1685 1686 3611

(週刊) 六個月分·200원 一部定價五원

發行兼印刷人 鄭斗石 編輯兼主幹 康大元

結核集團檢診實施

結核을 早期發見토록

保健所서四月二日부터三日間 全校生에 無料

大韓結核協會後援

本校 保健所에서는 오는 4월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大韓結核協會의 후원을 얻어 全校生에 對한 X—레이 集團結核檢診을 一齊히 實施한다。

本校에 保健所가 開設된 以來 처음으로 實施되는 이번 檢診은 結核治療에 있어 治療對策 重要한 早期發見과 감염자에게 대한 學生들은 無料로 檢診을 받게된다。

이에 대하여 27일 保健所當局者는 "리나라의 結核患者는 總人口의 三·二퍼센트에 해당하는 80만명으로 推算된다고 말하면서 結核으로 因한 死亡率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실정이라는 한편 「소—」의 「스트렙」과 「스트렙」과 같다는 이번에 公演 「스트렙」과 같다는 이번에 公演 「스트렙」과 같다는 이번에 公演

社說

大學과 研究機關

—學究의 使命과 關聯하여—

今空를 이어 本次에 研究機關을 設置하게 되었다。國家的으로도 研究機關의 增設되면서 統計學科가 文理大에 開設되는 것은 다른 拓分野나 서울대 學生이 共同으로 發起하여 지난 一月부터 推進하여오고 있는 『統計科學研究所』와 敎授·學生 온 『佛敎文化研究所』가 그것이다。昨年 後進社會問題研究協會』가 그것이다。昨年에 發足을 한 『佛敎文化研究所』까지 합친다면 三個의 專門的인 研究機關이 本校에 있게 되는 셈이다。

우리의 現實이 그렇듯이、大規模的인 施設이나 豊富한 研究基金이 마련될수는 없지만、微弱한대로 그前途는 希望的이다。特히 學問의 本質이라고도 할수있는 合理性과 有用性、實證性등 探求精神의 科學的인 計劃化라는 見地에서 볼때 그보 탐찬 期待와 기쁨은、비단 本校에만 하지 않는것로 안다。

대개 研究所라고 하면 科學振興의 翼衛을 말한다。이는 研究에 專念할수있는 機關이 社會科學) 分野로 二大別되며 各專門別로 細分되고 있다。基金은 文府나 準政府機關、大學、企業體등의 民間財團에서 全擔하기 마련이다。우리나라의 實情을 보면 겨우 政府의 몇개 研究機關이 있을뿐、대개는 大學의 附設機關으로 五、六個가 있을 程度이다。그것도 外國財團에 依存하여 命脈만을 維持하고 있는 機關도 있고 成果를 문기조차 獨自的인 研究計劃이나 事實上 어려운處地에 있다。

그러나 날로높아가는 國家內 要請을 가져온대로 充足시켜 나가자면、가 請을 初創期에서 研究機關의 主要目的은 學究의 姿勢를 살리기로한다。

關聯시켜 現代人들은 科學、政治、經濟、文化等各 部門에서 날로 向上하고 있다。便利한 生活의 利潤을 享樂하고 合理的인 理論에 依拠하여 制度 改編되며、死藏되던 文化的遺産은 그 이느때 보담도 生活人과 對話를 갖게한다。그러나 그間便의 뒤안길에는 享樂과 달을쌓고 探求精神속에 沒頭해온 學究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는 大學은 그래서 象牙塔속에서는 永遠히 찾는者의 목 소리가 끊겨서는 않되는 것이다。國家의 物質的、精神的인 富源은 모두 이곳을 源泉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때문이다。

오늘날 神話속에 잠겼던 世界가 이웃이 들대며 우리들이 잠깨 되었도、모두 疑問 과맞서서 찾아온 學究들의 成果였었다。 결국 學者들이 모인 研究所는 人間生活 實用性이 있는 理論을 整理하고 發 展시켜 勿論 研究에 專念하는 學者들로 實用性에만 目的을 둔단별이 없 면 꼭 實用性에만 目的을 둔단별이 없 다。그저알고 싶어서 시작하는때도있다。 혹은 歷史的으로 未決된 問題에도 關心 將來 興味가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기 보다는 探 求하는 어떤 結果를 줄거움과 더큰 느끼게 되는 境遇도 있을것이다。 그것을 研究의 눈은 境地가 있을것이 히려 學問 研究의 눈은 境地가 있을것이 다。아무도 理解할수없는 自己만의 使命 感이 없고서는 到達하지 못하는 境地가 바로 그것이다。換言하면 現實로부터 유 리된 孤立하게 보일때 學問의 姿勢는 高 서 지금 學者들은 現實社會로부터 非 難을 받는경우도 있게된다。아카데미즘의 줄거운 宿命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오늘 學究들의 德沢이 한 文明社會는 想像할수도 없었을 것이 다。

人間은 本來 알기를 좋아한다。現實的인 利害關係를 超脫하여 純粹한 理論만 의 學問을 즐겨하는 것이라도 純粹性을 사랑했던 希臘사람 한 學問의 우리는 때로 思起하는 까닭이 專門的으로 細分化되고 그러나 學問은 그 이에 있다。아무리알기를 希望한다해도 自己專攻 以外는 常識以上을 넘어 낼수가 없게된다。여기에서 相互協同的인 研究의 完璧을 指向하는 것이 곧 徹頭徹尾하게 强調되는 것이다。 研究機關은 말하자면 이러한 課題를 計劃的으로 同的인 研究課題를 特徵처럼 되어 하나의 協 는것이 있다고하 겠다。

要約 하면 研究所의 研究者들은 國家的 으로나 社會的으로 要請되는 問題解決에 이제나 顧問者의 役割을 담당해야 하고 隨時 諮問에 應한만한 內的姿勢가 추 이저야 않는 한다는 大前提아래 아무도 强要 하지 않는 自己만의 使命感이 아무도 高調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問題解決을 스스로 짊머 지고나선 研究機關의 比重은 커질 것이 기때문이다。

支天寺의 創建緣起와 唯一한 史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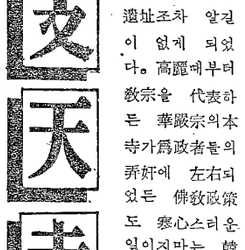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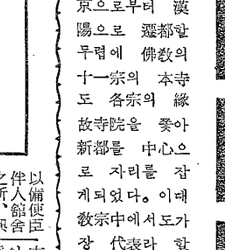
支天寺의 命名한 思想은 支天이라 的인 간직인도 秉彛에서 史料 文證마저 희미해서 알수없 을뿐더러 考究할 길이 없으나 바른것을 寺朝實錄의片 추려 보고 저한다

支天寺의 創建緣起와 唯一한 史料

支天寺는 位置를 一時에 大平館 天寺의 位置와寺格 高麗國 行道場 李太祖와 關係를 간 大藏經등의 片의 記錄을 더듬어 支 支天寺의 位置를 보면 以前에 發表한論文 들을 보면 어떠한것이라는 說이 있고 이의 한것이라는 說이 있고 大門은 지금의西 서 그뚜렷한 寺址가發 見되기까지에는 무어라 斷을 내릴수없으나 近 러記錄에依해서 그 接地帶만은 알수있는것 이다

太宗實錄 卷十六 三 ○支下面、太宗八年十月 二十一日條 其華嚴宗屬支天社 近 於大平館 不宜僧徒聚居 於田民并屬於興天社、

支天寺考

李太祖가 舊惡을 一掃하고 새로운 理念으로 나라를 세우고 首都를 松京으로부터 漢陽으로 遷都할 무렵에 佛敎의 十一宗의 本寺도 各宗의 緣故寺院을 쫓아 新都를 中心으로 자리를 잡게되었다。이때 敎宗中에서도가장 代表라 할수있는 華嚴宗도그 所屬寺院이라생각되는 支天寺로 本寺를 옮기게되었다。

그러나 支天寺가 華嚴宗本寺구실을 하기不過 十餘年만인 太宗八年에 이르러 儒生들이 信條로 심는事 大思想의 祭物로 廢寺를 當하였고 그後 오랜 風霜과더불어 지금은 그 遺址조차 알길이 없게 되었다。高麗때부터 敎宗을 代表하든 華嚴宗의本寺가爲政者들의 弄奸에 左右되었든 佛敎政策도 寒心스러운 일이지마는 韓國佛敎史上에劃期的인 線을남긴 李太祖와도 여러모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支天寺를疎忽히 넘길수없는 생각에서이 小論을 抄해보